**3주차 인간실격 논제**

자유논제 1

**Q. 요조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p.13) 라고 말합니다. "서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혹은 살아갈 자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이야말로 난해한 것"(p.27)이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있지만 단념할 수가 없어 '익살'이라는 실로 간신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을 바라보는 요조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시나요?**

|  |
| --- |
|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광대 짓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이란 것이 알 수가 없어졌고, 저 혼자 별난 놈인 것 같은 불안과 공포가 엄습할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웃과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체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저의 최후의 구애였습니다.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아무래도 인간을 단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광대라는 가는 실로 간신히 인간과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필사적인, 그야말로 천 번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기회를 잡아야 하는 위기일발의 진땀 나는 서비스였습니다. (p.16) |

**인간을 단념하지 못해서 하는 “광대 짓”은 사실 모든 인간이 인간관계를 위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광대 짓”의 강도가 모두 다를 뿐.**

**인간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있지만 단념할 수는 없는 요조의 마음을 이해한다.**

**다만 요조가 정말 끈끈하고 안정적인 인간적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었으면 그것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있다.**

자유논제 2

**Q.** **주인공의 아내는 한 상인을 믿었지만 좋지 않은 일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천진무구한 신뢰심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  |
| --- |
| ...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요시코는 신뢰의 천재니까요. 남을 의심할 줄이라곤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비참한 일. p.138 ... 저는 유부녀가 겁탈당하는 이야기를 이 책 저 책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시코처럼 비참하게 능욕당한 여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p.139 |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어린아이가 납치범에게 유인당해 납치를 당했다고 해서 그 아이의 잘못을 탓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순진무구한 아이를 유인한 납치한 죄를 무겁에 다루죠. 아이가 납치범에게 신뢰를 보였다고 해도 그에 대한 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나이와는 상관없이 천진무구한 신뢰심은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신뢰심을 이용한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어느정도 신뢰할지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신뢰할 지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논제 1

**Q. 인간실격의 요조는 진정 인간이 아니였을까요? 무엇이 그를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만들었을까요?**

|  |
| --- |
| 호리키의 그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에 저는 울었고, 판단하는 것도 저항하는 것도 잊어버렸고, 자동차를 탔고, 여기에 끌려와서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가도 저는 여전히 광인, 아니 폐인이라는 낙인이 이마에 찍혀 있겠죠.  인간실격. 이제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p.131 |

인간입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갔고 모두에게 낙인이 찍혔다고 해도 인간이 인간이 아니게 될 수는 없습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신이 아프다고 해서 인간이 아닌 사회라면 그 사회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요조가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만든 것은 본인이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끝까지 극복해 내지 못했고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면, 게다가 삶에 완전히 밀착된 것이라면 스스로 극복해내려고 갖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조는 그것을 위해 광대 짓만 할 뿐 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기에 본인이 본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본인이 만드는 것이지요.

선택논제 2

**Q. 본문중에 요조의 노트를 받은 마담이 그것을 작가에게 넘겨주며 인간이 그렇게까지 망가지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요조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 나아질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  |
| --- |
| *“…내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읽어보고….. .”*  *“울었습니까?”*  *“아니, 울었다기보다… . 끝난거지, 뭐. 인간도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다 틀렸어.”*  *(139p)* |

**만약 질문이 요조가 완전히 나을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이었다면 부정적인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질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자신에게 인간 실격이라는 판단을 내린 상황보다는 더 나아질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문만을 하는 정신병원이 아니라 요조에게 맞는 상담과 치료를 하는 이상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요조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유롭고 편안한 사람이 요조의 곁에 많이 생긴다면 요조의 정신적 안정감이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과의 관계성도 요조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하면 현 상황의 요조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